



## 말씀

## “나는 바르티매오를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방금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1절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르티매오는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앞을 못 보게 되어 결국 거지가 되어 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있는 힘껏 부르짖었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에 눈길이 닿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바르티매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사람들 눈에는 바르티매오가 시끄러운 거지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말했던 것이겠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9절에 나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은총이 내릴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똑같이 바르티매오를 보았는데, 드러나는 태도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들처럼 눈먼 거지에게 시끄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들처럼 용기를 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곤 합니다. 오늘 1독서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독서 맨 마지막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주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끌어주겠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남쪽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의 신전을 짓고 여러 민족들의 종교를 혼합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저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중 하나는 ‘너희가 하느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멸망당한거야’와 같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프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만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은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편견이 없으십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 없이 눈먼 거지인 바르티매오를 대하십니다. 천벌을 받아 눈이 멀었다고 묻기보다, 그저 하느님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를 생각할 때, 눈이 멀고 돈 없는 모습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구나’하고 생각하십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우리들의 편견을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편견을 깨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봅시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장비오(비오) 신부  
백민(육군 9사단) 상등 주임

- |         |   |
|---------|---|
| 제 1 독 시 | 예레 31,7-9   |
| 회 답 송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제 2 독 시 | 히브 5,1-6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br>○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br>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
| 복 음     | 마르 10,46ㄴ-52  |
| 영 성 제 송 |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김종교 프란치스코



성인명: 김종교 프란치스코 (金宗教 Francis)

신분: 중인, 의원, 순교자

활동연도: 1754-1801년

‘치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종교(金宗教) 프란치스코는, 1754년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의원이 되었다. 그는 가난한 데다가 호감이 가지 않는 외양을 하고 있었지만, 학문에 대한 취미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 주역인 이벽 세례자 요한은 이러한 그를 매우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놀라운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곤 하였다.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김범우 토마스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김 프란치스코는, 처음부터 드러나게 교회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1791년 신해박해 때에는 박해자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김 프란치스코는 다음 해 초에 최인길 마티아의 집으로 가서 주 야고보 신부를 만난 뒤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해 여름에 일어난 을묘박해로 체포된 후에는 마음이 약해져서 석방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김 프란치스코는 곧바로 신앙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 동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교리를 공부하는 한편,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김 프란치스코는 절친한 최필공 토마스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는 잠깐 경기도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정약용 요한의 문초 과정에서 우연히 그의 이름이 나오면서 체포되었다.

포도청으로 압송된 김 프란치스코는 엄한 문초와 형벌에 다시 마음이 약해져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형조로 이송된 후에는 갖가지 혹형을 당하고도 다음과 같이 굳건하게 신앙을 증언하였다. “저는 예전에 배교하고 석방된 후,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찾아가 세례명을 받고는 ‘천주교 신앙이 올바른 도리’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형벌과 문초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이러한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이를 달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형조에서는 마침내 김종교 프란치스코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1801년 10월 4일(음력 8월 27일) 홍필주 필립보와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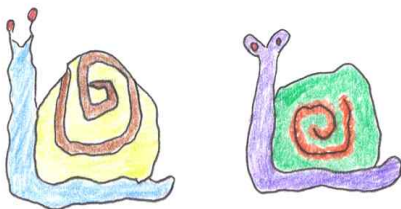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천천히 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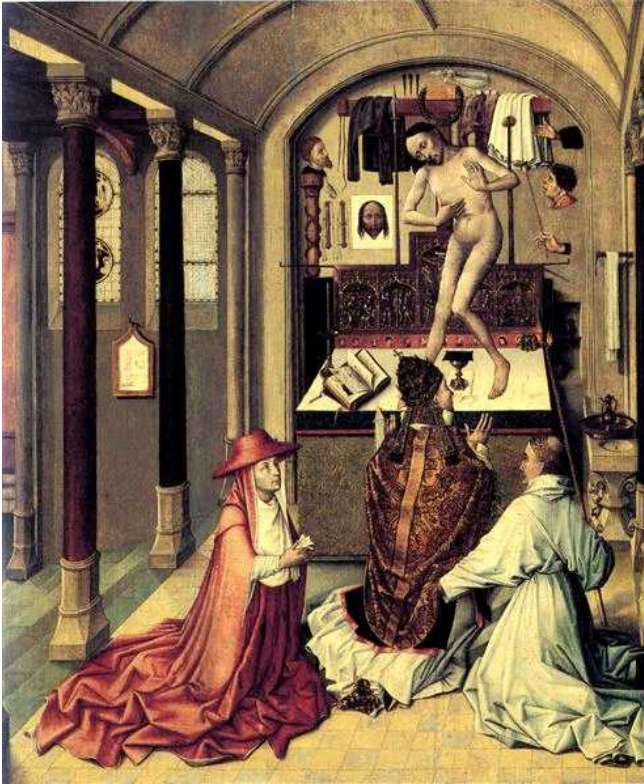
이 녀석들을  
따라  
천천히 천천히  
가다 보니  
참 많은 걸  
보게 되더이다.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



상화이야기

그레고리 성인의 미사



로베르 캉팡, 1415년  
 패널 위 유화, 85x73cm  
 브뤼셀 왕립미술관, 벨기에

‘그레고리 성인의 미사’라는 주제는 중세 가톨릭 교회 미술에서 빈번하게 다뤄진 주제로, 그레고리 교황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 성체성사 때에, 수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직접 제대 위에 나타나신 현시를 내용으로 한다. 이 주제는 반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미사와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본 작품에서도 그레고리 성인이 미사를 드리는 동안, 성체가 실제 예수님으로 변모하는 것을 그려내었다. 아울러 실제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의 얼굴과 채찍질하는 손이 수난 도구들과 함께 나타난 것으로 그려졌다.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는 이는 너무 놀라 향 피우는 도구를 땅에 떨어뜨렸고, 사제가 미사를 위해 손을 씻고 준비를 하는 쟁반과 물 주전자, 수건들도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밀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매 미사 때마다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과 미사의 신성함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림이다. 일주일에 한 번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 10,52)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30주일: 상송대 김성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가톨릭 의료협회 정기 세미나  
 때·곳: 11월 2일(금)~3일(토), 부산 해운대

◆ 군중교구 ‘잇숨 생기다’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